

7월18일(월)/골2:20~23

제목: 음식 가지고 월가불가하지 마세요

바울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은 크리스찬들이 붙잡지도, 맛보지도, 건드리지도 말라는 초등학교 시절의 율법 규정들을 아직도 준수하느냐고 물었다(20~21절). 그노시스 이단은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신앙과 결부시켰다. 그들은 어떤 음식은 만지거나 맛보지도 말라고 하였고 그것을 어기면 큰 죄에 빠진 것으로 간주했다.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그러한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한 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22절)고 하였다. 음식은 입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배설물이 되어 몸 밖으로 나갈 뿐이라는 것이다. 음식은 음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한 규정들은 가짜 종교 집단이나 꾸며낸 경건이나 자기 몸을 학대하려는 수행자들에게는 이로울지 모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23절).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마15:11). 음식은 음식을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 들고 온 제사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 예수님과 바울의 요지는 음식을 신앙과 결부시키는 것은 유치한 짓이라는 것이다.

7월19일(화)/골3:1~4

제목: 크리스찬의 인생관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모든 옛 것을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아난 사람은 위에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아야 한다(1~2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3절).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자이다. 크리스찬은 영원이라는 빛을 배경으로 세상을 보는 자이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보다 큰 영원한 세계를 배경으로 세상을 보는 자이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자기 인생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일이 자기 인생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피아노가, 축구가, 그림이 자기 인생이라 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이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4절).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일에서는 자유롭게 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오랫동안 숙달되지 않아 힘들겠지만 자꾸 그렇게 연습해야 한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자꾸 연습하면 땅의 일에서 조금씩 초연해질 수 있으며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메꿀 수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귀한 것은 없다.

7월20일(수)/골3:5~11

제목: 우리도 혹시 우상 숭배를...

바울은 항상 교리나 신학을 열거한 뒤, 그 다음에는 윤리적인 요구를 시작한다. 골로새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삶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을 버려야 한다(5절, 8~9절). 물론 이전에는 이런 것들과 친하게 지내며 살았지만 은총을 입은 이후라면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7~8절).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예외 없이 그가 믿는 자라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10~11절). 여기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한 문장을 주목하자(5절). 우상 숭배의 본질은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 사람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을 예배한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신을 설득하고 매수하려고 한다. 우상 숭배는 자기가 신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기 보다는 신을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탐심인 것이다. 성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7월21일(목)/골3:12~17

제목: 말하고 행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신 사람들이므로 그 기에 걸 맞는 품성을 지녀야 했다(12절). 바울은 그 목록들을 열거하였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심과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다(12~15절). 또 하나님 말씀의 풍부한 생명력과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 서로에 대한 가르침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다(16절). 또 말과 행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17절). 우리의 말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입으로 하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말하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우리의 행동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된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을 예수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물어보면 된다. 예수님이 빠지고 자기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할 때 항상 예수님을 염두에 둔다면 아무도 우리를 성도할 수 없을 것이다.

7월22일(금)/골3:18~4:1

제목: 주어야 받는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18~19절). 남편을 업신여기는 아내가 되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노예처럼 여기는 독재자가 되지 말고 아내를 섬세하게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서 의기를 꺾어서는 안된다(20~21절). 자녀는 자기의 생명의 원천인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하고, 부모는 자기 자녀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부모의 의무는 항상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와 격려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는 모든 일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고용주를 섬겨야 하며, 고용주는 자기의 주인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노동자를 대우해야 한다(22~4:1). 기독교 윤리는 항상 상호 의무이다. 남편은 아내와 동등한 의무를 가진다. 부모도 자녀와 동등한 의무에 관계에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의무만을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나에게 잘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잘해줘 버리는 것이다. 주어야 받는다. 받으면 또 주고 싶다. 그리고 나면 또 돌아온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